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전주, 사회적 경제 키우다

양극화 해소 · 경제활동 관련 사회문제 해결

전주시는 민선6기부터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왔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 착한경제 육성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이다.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이다. 시는 지난 2014년 한국 지방정부 최초 국 단위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는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 운영, 현장컨설팅 TF팀 등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에 2억 3천만원의 재정사업을 지원하고 현재 451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와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을 매년 개최하고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집중 홍보, 가치 확산을 위해 행복의경제학, 사회혁신한마당,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사회적경제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83개 사업장에서 576여명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개소된 금융복지 상담소를 통해 연간 1,600여건의 채무조

정, 재무 상담을 실시했고 2019년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240건의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가계 부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권리보호와 새 출발 지원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공동체 사업

전주시는 경쟁과 효율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재건을 지원하는 '전주형 공동체사업'을 육성중이다. 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민들이 각자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민중심형 지원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은두레공동체'는 전주 시민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돕는 전주형 공

동체 사업이다. 시는 현재 총 60개의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특히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11개의 아파트 공동체를 육성, 최대 4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 공동선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을 받았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3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며 전주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선미촌 일원에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곳을 문화 예술 인권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 대표 도시재생사례로 꼽혔다. 또한, 팔복예술공장은 폐공장을 시와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재생시켜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숨은 관광지 6선'에 선정됐다.

서노송예술촌 또한 삭막한 역 주변을 문화가 있는 도시재생으로 예술인들이 작업공간과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곳으로 재탄생시킨 전국에서 최초사례다. 나아가, 시는 서학동·용머리여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나섰고, 낡은 전주 역사를 국제세계공포를 통해 신축을 추진하는 등 또 다른 창조적 변모를 준비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착한경제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 'UP' 전주형 공동체사업 · 도시재생 등도 진행

대표적으로 천사길 사람들 공동체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노루걸음과 동화나래 연구소 공동체는 '이그나이트 V-korea 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

▲지속가능한 생태비전, 전주형 도시재생 민선6기부터 시작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거주 여건을 개화나래 연구소 공동체는 '이그나이트 V-korea 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의원)가 17일 덕진구 아중리 소재 호동골 시민정원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펼쳤다. 위원회는 이날 호동골 시민정원 조성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연생태학습원과 양묘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시발전저해요소였던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이 새로운 시설과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전주의 대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도시건설위원장은 "생각을 바꾸면 쓰레기매립지가 시민을 위한 정원이 되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여건과 등을 꼼꼼히 확인해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상산고 학부모들 "자사고 탈락 '부동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동서학동, 산성천 하천 정비

한국 고유종인 운문산반딧불이 서식지로 조망되고 있는 남고산성의 산성천이 생태적 가치를 담은 마을정원으로 거듭난다. 완산구 동서학동(동장 노미숙)은 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은두레공동체 산성천 황학 사람들(대표 홍민호)과 함께 산성천 정비활동으로 (구)서학파출소에서 충경사까지 인근의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웠다. '산성천 황학 사람들'은 오는 22일 산성천 산책로에 아열대열림을 조성, 사진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익산 산후조리원서 화재

산모 · 신생아 등 21명 대피

익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나 산모와 신생아 등 21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경 익산시 모현동 모산후조리원 3층 복도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내부 66㎡가 소실됐지만,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다. /강석훈 기자

에어컨 실외기 휴친 60대 검거

주차장에 보관 중인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빌라 주차장에 임시 보관중인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손수레에 실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전주에 '든든한' 기업 활동 터전 마련

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2곳 동시 건립

각각 내년 6월 · 2021년 3월 완공 예정

전주시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 탄소, 3D프린팅, 스마트미디어 등 미래먹거리산업에 활력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심 속 소규모 공장부지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와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동시 건립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들이 완공되면 90여 개 중소기업이 초기 공장부지 마련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 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건립되는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2021년 3월까지 총사업비 243억원이 투입돼 입주공간 30실과 지원공간 13실을 갖춘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200㎡의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이곳을 △3D프린팅 △스마트미디어 분야 등 미래먹거리가 될 신성장산업분야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6층에 연면적 12,200㎡ 규모로 오는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다. 64개 입주공간과 19개 지원공간이 갖춰지는 이곳에는 탄소산업과 기계부품산업,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건립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단순한 임대형 공간이 아닌 창업문화 확산과 기업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 정보제공과 컨설팅, 기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내에 공동장비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제품개발 등 제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하여 업종간 협업과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기업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심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업기업 육성에 달려 있다"며, "탄소, 3D프린팅, AR·VR 등 스마트미디어산업 등 지역특화산업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등 미래먹거리 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식산업센터 개관 약 6개월 전부터 입주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탄소산업과(063-281-2548)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10년 된 영화제작시설 최신식으로 교체키로

올해로 20년째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해온 전주시가 10년 된 영화제작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꾼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17일 '2019년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를 찾아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사업추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은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등 후반작업실을 찾아 사업시행 전 작업환경 등을 점검했다. 시는 조만간 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영화제작소의 색보정실(8K)과 어시스트룸(4K), DCP 마스터링룸, 편집실 및 교육실 △전주영상제작소 마스터링스튜디오의 종합음향편집실

(Protocols 2019 HDX)과 음향녹음실(녹음 믹싱 콘솔), 음향편집실(Protocols 2019 HDX), 음향교육실에 구축될 장비들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서배만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노후장비가 교체되면 후반제작지원사업의 지원편수를 더욱 확대하고 후반제작 전문 인력 양성교육을 활성화해 전주시가 후반작업하기 좋은 영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 첫 마중권역 활성화 '머리 맞대다'

시, 도시재생 전문가 창조 포럼

전주의 관문인 첫마중권역을 전주관광·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전주시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17일 전주역 앞 전주웨딩의전당에서 도시재생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활동가,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창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심시가지 상가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구치훈 한양대 교수가 중심시가지 활성화 전략 및 성공사례를 들어 특강을 했다. 또한,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동희 군산대학교 교수와 유희중 호원대학교 교수, 박미규 LH 도시재생 지원기구 박사, 김창환 전주시혁신센터 센터장 등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역세권 중심시가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쇠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와 주민, 현장지원센터가 상호 고민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전주역과 첫마중길 주변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등 약 300억원을 투입,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역 시설개량사업의 경우 국비 300억원과 철도공사 100억원 등 총 450억원을 투입해 선상역사를 증축하고 주차시설 조성과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국가폐암검진 질 관리센터 지정

전북대병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찬)이 국가폐암검진 사업의 질 강화를 위한 '국가폐암검진 권역별 질 관리센터'에 지정됐다. 17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정부가 8월부터 30년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 사업' 시행예정인 가운데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전국 4개 병원을 국가폐암검진 권역별 질 관리센터로 지정했다.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권역별로 지정된 전국 4개의 질 관리센터에서는 폐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들이 정확한 검진을 통한 폐암 조기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진자들에 대한 면담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판독지원 강화 및 폐암검진 질 관리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지역의 폐암검진 기관들이 원활하게 폐암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폐암검진 질 관리센터는 센터장 영상의학과 진공용 교수를 중심으로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6명과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됐으며, 폐암 검진 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폐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종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낮아 조기발견이 필요한 질병이다. /김영태 기자

또한, 폐암은 연간 2만4267명이 발생하고 1만3324명이 사망하여 전체 암사망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행되었던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장기간 흡연자의 폐암 사망률 감소를 위한 국내 폐암 검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가 참여 기관으로 지정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참여기관 폐암 확진자 75명의 9.3%에 해당되며, 전국 14개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충청 호남권역의 검진기관을 관리하는 질 관리센터로 지정됐다. 유희철 전북지역암센터 소장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에 따라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도입되는 폐암검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폐암검진 질 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다. 조남찬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폐암검진 질 관리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지역의 국가폐암검진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